



신규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연구: 2007년 세계 보험업계, 신흥시장이 주도

Contact:

Daniel Staib, Zurich
Telephone +41 43 285 8136

Kurt Karl,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564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08년 6월 24일, 취리히 - 최근 발표된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연구에 따르면, 2007년 세계 보험료 수입은 실질 기준으로 3.3% 성장한 미화 4조 610억 불에 달했다. 이러한 성장을 주로 주도한 것은 선진국 및 신흥시장 생명보험 부문이며, 신흥시장 손해보험 부문 역시 일익을 담당했다. 아시아지역의 보험료 수입은 미화 8410억 불로 4.5%의 실질성장률을 보였으며 이 중 한국의 보험료수입은 미화 1170억 불로 11.1%라는 두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생명보험료 수입은 최근 10년 평균치를 웃도는 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손해보험료 수입은 신흥시장에서 크게 증가했으나(+10%) 선진국에서는 감소했다(-0.3%). 그러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부문 모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품이 성장 주도

본 연구의 공동저자 Daniel Staib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한 거시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7년 생명보험 부문은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세계 생명보험료 수입은 5.4% 증가한 미화 2조 3930억 불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및 기타 자산축적 상품의 판매가 선진국 생명보험 부문의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신흥시장 생명보험 부문의 성장을 촉진한 요소는 뛰어난 경제실적과 성장 잠재력이었다.

생명보험 업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인구 고령화와 국가 사회보장 혜택의 감소로 인하여 전통적인 생명보험 모델에서 연금중심 모델로 전환 중인 국가들의 경우, 일시납보험료 상품 및 연금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인구가 비교적 젊고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는 신흥시장의 경제성장으로 생명보험 상품 전반의 판매가 증가했다.

-
- 2007년 발생한 심각한 신용 위기와 불안정한 금융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판매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손해보험: 성장을 둔화에도 수익성 유지

2007년 세계 손해보험료 수입은 총 1조 6680억불로, 실질 기준으로 0.7%의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손해보험료의 성장은 선진 및 신흥 시장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 반면, 신흥시장에서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선에 그쳤다. 일부 국가에서 보험요율 인하 압력이 지속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수익성 또한 견실한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전망: 생명보험은 견실한 성장 지속, 손해보험은 침체

자본시장 및 주식시장 불안으로 수요가 억제됨에 따라 2008년 생명보험료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Daniel Staib는 “경제환경 및 자본시장이 안정되면서, 중기적으로 생명보험은 성장을 및 수익률 측면에서 높은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Staib는 “손해보험료 수입은 선진국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흥시장에서는 비록 최근보다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지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실적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기는 하겠지만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은 제한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계적인 물가상승 기조이다. 이는 배상책임 및 기타 롱테일(Long-tail) 보험의 지급보험금 비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주(註):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연구 “2007년 세계 보험”은 147개국 보험시장을 조사하여 이 중 88개국을 명시적 참조대상으로 함

2007 년도 주요 보험 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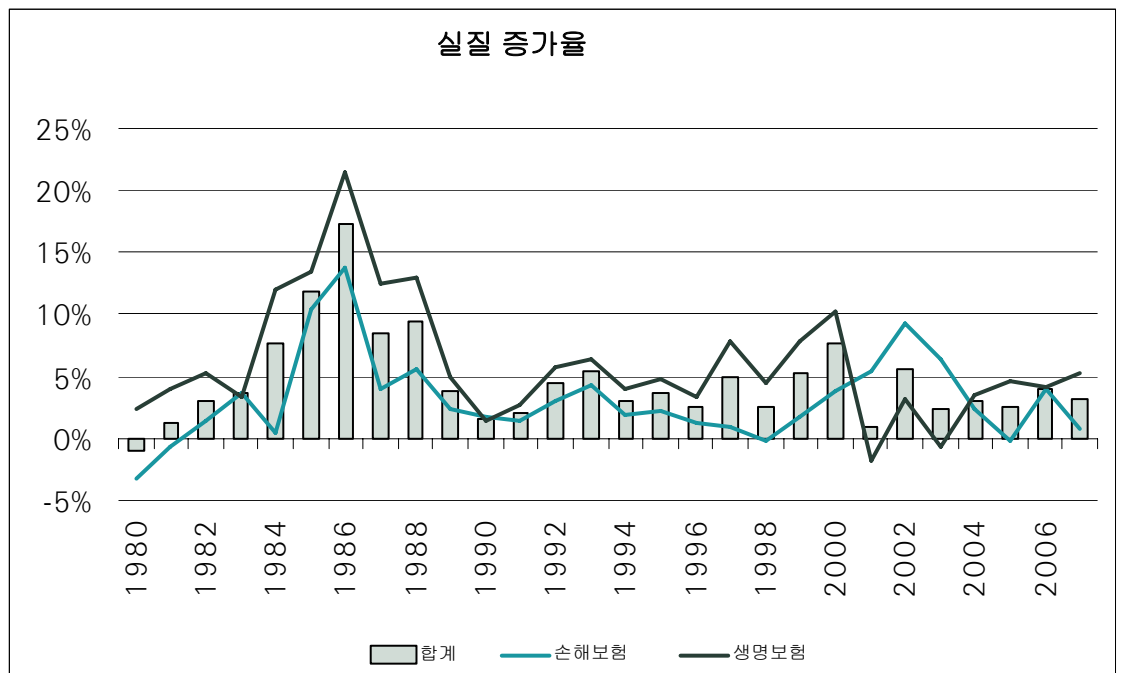
| | 생명보험료 | | 손해보험료 | | 총보험료 | |
|--------------------|--------------|---------------------|--------------|---------------------|--------------|---------------------|
| | 실역 USD | 증감률* (2006 년 대비) | 실역 USD | 증감률* (2006 년 대비) | 실역 USD | 증감률* (2006 년 대비) |
| 선진국 | 2 174 | 4.7% | 1 472 | -0.3% | 3 647 | 2.5% |
| 미국 | 578 | 5.5% | 651 | -1.3% | 1 230 | 1.8% |
| 일본 | 331 | -3.6% | 94 | -1.6% | 425 | -3.2% |
| 영국 | 350 | 22.5% | 114 | -2.3% | 464 | 15.3% |
| 독일 | 102 | -1.3% | 120 | -1.4% | 223 | -1.3% |
| 프랑스 | 187 | -4.3% | 82 | 0.5% | 269 | -2.9% |
| 이탈리아 | 88 | -13.6% | 54 | 0.1% | 142 | -8.8% |
| 신흥 아시아 선진국** | 163 | 15.5% | 53 | 9.7% | 216 | 14.0% |
| 신흥시장 | 219 | 13.1% | 196 | 10.2% | 414 | 11.8% |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연안국 | 36 | 11.4% | 52 | 8.3% | 87 | 9.6% |
| 브라질 | 18 | 15.5% | 21 | 6.1% | 39 | 10.3% |
| 중유럽 및 동유럽 | 18 | 17.0% | 56 | 11.7% | 74 | 12.9% |
| 러시아 | 1 | 30.3% | 29 | 16.2% | 30 | 16.6% |
| 동남아시아 | 124 | 16.8% | 53 | 13.9% | 177 | 15.9% |
| 중국 | 59 | 18.6% | 34 | 19.7% | 92 | 19.0% |
| 중동 및 중앙아시아 | 6 | 8.7% | 17 | 9.6% | 23 | 9.3% |
| 아프리카 | 38 | 3.4% | 15 | 0.6% | 53 | 2.8% |
| 세계 | 2 393 | 5.4% | 1 668 | 0.7% | 4 061 | 3.3% |

주(註): * 실질 기준, 물가상승 조정.

**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출처: 감독당국 및 보험기관이 발표한 최종 및 잠정 수치와 일부 예상치

2007년 실질 보험료 증가 손해보험료 보다 생명보험료가 빠른 증가세를 보임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하나로 전세계 25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A-' 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a2' 를,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 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9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 2006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년을 맞이했다.